

나무

고양예술고등학교 신*윤

반지하의 할머니는
나무뿌리와 동거하며 지냈다

컴컴한 지하에 밝혀둔 형광등 보고
남루한 나무뿌리 한 줄기가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다

할머니는 한 쪽 벽을 내어주며
자신보다 오래 살 생을 질투하였다
매만지는 손의 주름마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때부터 할머니의 무릎에 웅이가 자리잡고
고목의 호흡법을 터득했다
항문이 열린 몸은
꺼어둔 나뭇가지처럼 가벼웠다

지팡이는 오래도록 누워만 있고
시장 사람들은 궁금증을 나이트처럼 쌓는다
나무문은 조금씩 가지를 뺏고는 잠들어버리고
검버선이 만개한 얼굴은
늦봄을 맞은 지친 목련이
다음 해를 기약하듯이
조금씩 저가고 있었다

나무뿌리 손짓하는 반지하에서
백발 잎사귀의 고목이 늘어져있었다
인적없이 창백한 냄새가 진동하고
바람만 문 두드리는 곳

시장의 개들은 할머니 냄새 잊었는지
낮선 나뭇잎 불어올 때마다
컹컹 짚어대기 바빴다

목련이 죄다
고단한 목덜미를 주무르다가
떨어지던 봄이었다